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

미가 7:7-10, 히브리서 10:19-39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눈 (칼빈주의의 5대 교리 -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궁극적 건인)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 (1)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 (2) 선지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 배경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2.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필요하다.

- (1) 구원받은 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 (2)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영적 군사다.

결론 : 영혼 구원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 -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더욱 모일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성령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워싱턴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왔다. 박지영 권사님을 뵈고 건강히 잘 계신 것을 확인하고 왔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드린다. 메르스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은 악수를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는 인사를 하도록 하자. 어쨌든 조심해야 하나까. (웃음) 히브리서는 기록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는 책이다. 오늘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답, 누림을 발견케 되기를 축원한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도덕과 윤리로 봐 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사람은 자기에게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대로 삶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힌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찾아내고, 그 복음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 각인된 뿌리내린 것들, 체질화된 것까지도 바꿀 수 있게 된다. 장 칼뱅이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데, 굉장히 성경을 바르게 본 분이였다. 성경을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전체를 복음으로 정리해 놓았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한다. 둘째로 정리하기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롬5:8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라는 것이다.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한다.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서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잘 해서, 사백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훌륭하고 인격이 고매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나 셋째로, 누구나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다. 그래서 참사랑 가족들은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란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 무디 선생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예를 들었다. 볼펜 하나와 볼텍스 시계를 내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가지고 가라고 했다. 얼른 어떤 어른이 볼펜을 가져갔지만, 볼텍스 시계는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것을 고맙다 하면서 가져가 버렸다. 어른들이 야단을 쳤는데, 무디는 ‘내가 준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했다. “아니, 진짜 준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질걸.” 그래서 무디가 설명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받으면 된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사람이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거부할 수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은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끝까지 승리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복음 안에 서게 되기를 축원한다.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두 가지를 체했으면 좋겠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

(1) 예수님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다.

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히2:14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애 하시고 그 종 되었던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참 왕이시라고 설명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이다.

② 히브리서 9장에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이루심으로써, 모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스스로 지은 자범죄,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까지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다.

③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히10:19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결과, 그 사이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원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다. 성전 앞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뜰, 유대 여자가 들어오는 뜰이 있고, 더 들어오면 유대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면, 가운데 기둥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뒤쪽은 성소, 앞쪽은 지성소라고 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다시 들어갈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여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향불 연기가 나오는데, 제사를 받으실 때는 그 연기가 올라와서 법책을 덮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을 용서한다는 의미다. 제사장의 옷에는 금으로 달린 방울이 많았는데,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그 방울 소리가 밖에 들린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줄을 연결해 두었던 대제사장의 몸을 거두어들이는 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슬퍼하며 통곡했다. 나는 그곳을 두 번 가 보았는데, 지금 성전 자리는 무슬림들의 모스크로 바뀌어 버렸다. 거기에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주장한다. 내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다.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었다. 거기에 지성소를 만든 것이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유대인들도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갈 때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대인 한 명이 지키고 서 있었다. 하나님이 이 어딘가에 계시므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도, 유대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졌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잘 설명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서, 우리가 직접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렘2:14에는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했다. 요14:6에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3)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①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첫째로 일어나는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처소를 미리 예비하셨다. 요14:1-6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옥 배경에 빠져 버렸는데,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천국으로 신분을 옮겨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② 둘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 범죄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 버리게 되었다. 그때부터 불안, 염려,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한다.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주님, 오늘 먹는 음식이 참 맛있네요. 주님, 주님과 함께 보는 저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가 이 들에 색을 칠했는가. 누가 그 들의 풀들의

색깔도 바꿀 수 있는가. 진정으로 눈을 떠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변화를 누리시기 바란다.

③ 세 번째 변화가 오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기도 소통의 열쇠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가능하면 매지 말고 풀어라. 가능하면 용서하라.

2.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1) 먼저 잠시 생각해볼 것이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6절에 보면 마치 멸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같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실수로 죄를 짓는가, 고의적으로 짓는가? 의도적으로 할 때가 많지 않은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마12:31-32에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히6:4-6에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주 준엄한 말씀이 있다. 이것은 얼핏 보면 구원받았는데도 다시 멸망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다. 아주 어려운 난해구절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을 가지고 공갈을 치고 위협한다. 중세 천주교회도 이것을 가지고 공갈을 쳐서 헌금을 하도록 만들었다. 종말론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위협을 한다. 그 말이 너무 겁나니까.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이 수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했는지, 꼭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지옥에서 시달리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했다. 그런데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하니까 그것을 믿고 제발 살려달라 하면서 면죄부를 사고 그랬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들은, 복음을 듣고 받았는데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다. 여기 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 받는 것이다. 성경에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알고도 거부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끝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큰일인 것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겨우 2%에 지나지 않는다. 98%가 믿지 않는다. 안 믿는 데에는 도리가 없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란다. 억지로 안 믿고 저주받고 지옥까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이 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한 것이 베드로다. 둘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가롯 유다는 지옥에 갔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는가? 차이가 뭐가? ‘나같은 놈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매달아 죽은 것이 가롯유다다. 그런데 베드로는 철면피다. “그래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붙잡았다가 구원받은 것이다. 붙잡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모두가 붙잡아야 산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끝끝내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지금 이 구절들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란다.

(2) 반드시 기억하라.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은 영영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시48:14의 말씀이다. 절대 잊지 마라. 속지 마라. 요5:24은 말씀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롬8:39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요일5:11-13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때도, 믿어놓고도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헛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서신서를 볼 때는 잘 생각하라. 서신서의 수신자는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썼음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썼는데, 요20:30-31에는 목적을 밝혔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썼다고 했다. 성경을 바로 보라. 요일5:18에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다. 분명히 선언하셨다.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 믿으

시기 바란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멸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 저주로 돌아갈 수 없다. 마귀 자녀, 지옥 백성 될 수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3)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싸움을 일심, 전심,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39절에 말씀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다. 뭘 믿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것을 믿는다는 그 말이다.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천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일을 위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할 그리스도의 군사다. 잠23:16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일어나시기 바란다. 오늘 구약본문 미7:8은 말씀한다. “우리는 앞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어두운 데 있어도 여호와와 빛을 누릴 것이다.” 요16:33은 말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약4:7은, 현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다. 마귀를 보고 별별 떨지 말고 원수를 보고 담대히 물리개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란다. 떨어야 하는 것은 마귀다. 믿으시기 바란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우리가 마귀를 괴리고 별별 떨 때가 아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런데 이 완전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져 버렸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수가 계속 흔들면 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수천 배 더 악한 세상이다. 원수는 발악하고 있다. 그래서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옛날 유교 가문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자기 자녀, 손자들을 호적에서 파낸다고 위협하고 그랬었다. 호적에서 파여 버리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성경은 배도자(背道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다. 혹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배도자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 버릴 수 있는지도 모른다. 아주 적은 수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완전주의자는 아니다. 구원파는 완전주의인데,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으며 완전한 의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완전주의는 아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은 것 아닌가? 그래서 나 혼자서는 이 본문을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 이것은 추측이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같은 추측 중의 하나로, 나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바울의 신앙을 배웠던, 그러면서도 구약성경에 정통했던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받은 후에 구약을 재해석해서 전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추측을 하는 것처럼, 혹시 정말 못된 자, 배도자는 멸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해 해 본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는데,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불수록 더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히10:23-25).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견고한 소망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란다. 언약을 각인시킨 전도제자들이 할 일은,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포럼을 계속 서로 나누는 것이다. 실패한 일, 성공한 일, 당황했던 일을 다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치유해야 되겠다. 생명 살리는 것이 최고 사랑이고 선행이다. 모여서 계속 말씀포럼, 전도포럼, 기도응답포럼을 나눠라. 구역예배, 지교회예배를 이것을 놓고 성공시키시고, 캠프도 계속 모이시기 바란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 모여야 한다. 장작불을 피우려면, 땀을 모아야 한다. 아무리 큰 땀감도 땀어놓으면 불은 꺼진다. 각자 하려고 하지 말고 모여라. 전 교회가 모여야 한다.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채우실 것이다. 이 원수들이 우리를 마지막에 방해하는 것이, 전도자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메르스가 송파구에 왔으니,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카톡으로 예배드리라고 광고한 곳도 있다고 한다. 이 전략에 속지 마라.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에 속지 말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 행5:42의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참사랑 가족들 되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이다. 동성애자 모임도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